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2013-기본)

---

# 해 외 출 장 보 고 서

---

2013. 8. 15 ~ 8. 24  
아일랜드 더블린, 영국 런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해외출장보고서  
No. 2013-

---

2013. 09.

출장자
심경미 부연구위원

## ■ 목차

### I. 출장 개요 .....1

- 1. 출장 개요 .....1
- 2. 출장 목적 및 필요성 .....1
- 3. 출장 일정 및 업무수행 내용 .....2

### II. 주요 기관 방문 면담내용 .....1

- 1. English Heritage .....3
- 2. City of London .....6

### III. 주요 사례지 답사 .....9

- 1. 오래된 건축물 활용 사례 .....9
  - 1) Guinness Storehouse ..... 9
  - 2) Covent Garden ..... 10
  - 3) Whitechapel Gallery ..... 11
  - 4) Barbican ..... 12
- 2. 산업유산 활용 사례 .....13
  - 1) Tate Modern ..... 13
  - 2) Battersea Power Station ..... 14
  - 3) The Wapping Project ..... 15
- 3. 오래된 역사지구 관리·활용 사례 .....16
  - 1) Temple Bar ..... 16
  - 2) Hampstead Garden Suburbs ..... 17
  - 3) Camden Market & Columbia Flower Market ..... 18
  - 4) Brick Lane ..... 19
- 4. Listed Park & Listed Building 사례 .....21

### IV. 구독자료 목록 .....25



# ■ I. 출장 개요

## 1. 출장 개요

- 과 제 명 : 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 출 장 지 :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 출장기간 : 2013. 8. 15(목) ~ 2013. 8. 23(금) (7박9일)
- 출 장 자 : 심경미 부연구위원

## 2. 출장 목적 및 필요성

- 영국의 역사유산(Heritage Asset)의 목록구축을 위한 조사 및 지정(designation)을 통한 역사유산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조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등재 건축물(Listed Building)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소요시기 및 참여주체 등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특히 English Heritage와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HLF:Heritage Lottery Fund, HELM;Heritage Environment Local Management)과의 역할분담 및 관계파악을 통해 영국의 역사유산(Heritage Asset) 관리체계를 파악하고, 최근 경제위기 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영국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파악하고자 함
-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건축자산 및 역사지구의 활용을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지역들을 답사하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국내 도입하고자 하는 건축자산 목록구축 제도화 방안 마련 및 우수건축 자산의 선정기준 마련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건축자산의 활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방문기관 인터뷰 주요 내용 : 영국의 역사유산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파악
  - English Heritage :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등재 건축물 조사 및 지정관련 절차, 참여주체, 소요시기, 기준 조사, 최근 기관 및 정책적 변화 등
  - City of London : 역사유산 등재현황, 관리현황, 변경시 인허가 절차, 보존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 등
  - 두 기관 간, English Heritage와 HLF, HELM 간의 관계 및 역할분담 등

### 3. 출장 일정 및 업무수행 내용

- 잉글리쉬 헤리티지(English Heritage) 방문 및 면담조사
- City of London(Department of Built Environment) 방문 및 면담조사
- 관련 사례지 답사

일 자	활동지역	방문지 및 업무수행 내용	비고
8월 15일 (목)	더블린	더블린 도착	
8월 16일 (금)	더블린	더블린 시청 방문 Temple Bar 지역 답사	
8월 17일 (토)	더블린	더블린 구도심 답사 더블린 출발	
	런던	런던 도착	
8월 18일 (일)	런던	역사지구 관리/활용 사례지 답사	
8월 19일 (월)	런던	잉글리쉬 헤리티지 방문 및 면담 영국 등재 건축물 사례지 답사	
8월 20일 (화)	런던	City of London 방문 및 면담 Covent Garden, Barbican 답사	
8월 21일 (수)	런던	산업유산 활용 사례지 답사 : Tate Modern, Wapping Project 등	
8월 22일 (목)	런던	등록 공원 및 정원 사례지 답사	
	런던	런던 출발	
8월 23일 (금)	인천	인천도착	

## ■ II. 주요 기관 방문 면담내용

### 1. English Heritage

- 일 시 : 2013. 08. 19(월) 10시
- 장 소 : 잉글리시 헤리티지 본사(English Heritage Head Office)
- 참석자 : Emily Gee(Head of Designation, English Heritage)

#### □ 조직구성

- English Heritage의 지정 및 계획과 관련된 부서는 크게 3가지로 나뉨
  - Designation 부서: 건축물의 지정 업무를 담당
  - National Planning 부서: 종합적인 정책설정과 규정개정 등을 담당
  - Heritage Protection 부서: 역사유산의 조사를 주로 담당
- English Heritage는 잉글랜드 전 지역에 9개의 지사가 있고, 이와 별도로 잉글랜드 지역을 지리적으로 4개로 나누어 4개의 Designation 지사와 런던의 Headquarter를 운영
  - 각 지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대략 10여명으로서 지사를 대표하는 한 명의 Team Leader, 2-3명의 사무 및 업무협조인원 그리고 6명 정도의 프로젝트 담당자 (advisor)가 근무
- 2015년 3월까지 English Heritage는 건축물의 지정, 유지관리, 정책보조와 관광 및 수익산업 등으로 구분하여 2개의 기관으로 분리될 예정

#### □ 경제 불황과 정부 예산 삭감의 영향

- 영국 정부의 예산삭감 정책에 따라서 English Heritage의 예산도 많이 삭감 당했고, 경제회복과 관련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에 영향이 있음
  - 과거에는 건축물이 건축유산으로 지정되면 해당 건축주들에게 약간의 경제적 보조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 경제적 지원을 못해주는 대신에 훌륭한 건축유산을 소유한 것에 대한 긍지를 고취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Designation Year Book을 발행
- English Heritage와 Heritage Lottery Fund와 같은 펀딩체계는 분리되어 운영

- English Heritage내에서는 National Planning 부서가 펀딩 기관들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Heritage Lottery Fund의 경우 주로 종교건축을 지원

#### □ Grade System(등급체계)

- 등재 건축물의 등급체계인 Grade I, Grade II\*, Grade II는 다양한 평가요소를 통해서 결정되고, 정의 자체가 추상적일 수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곤란할 수 있음
  - Grade I: 세가지 등급 중에서 최고의 등급으로서 국가적으로 highest, best한 건축물만이 이 등급에 해당
  - Grade II\*: 역시 높은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지만, Grade I에는 미치지 못하는 건축물로서 희귀하고 보존상태가 우수한 건축물들이 해당
  - Grade II: 전체 등재 건축물의 90%를 차지하는 등급으로서, 우리가 흔히 만나지 못하는 전형적이지 않은 건축물들이 포함

#### □ English Heritage와 지방정부 건축유산 담당 공무원과의 협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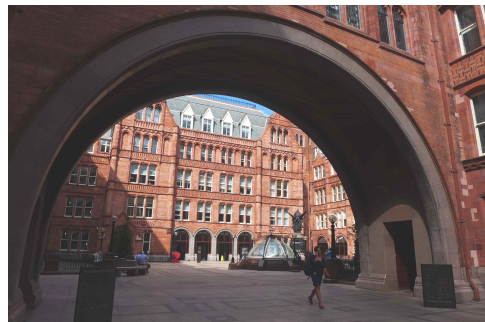
- 각 지역의 Designation 지사에서는 6주에서 3달에 한번 정도 지방공무원과 미팅 및 교육시간을 가짐
  - 정책변경, 교육자료 등은 인터넷 포럼형식의 HELM(Historic Environment Local Management)을 통해서 전파
- 지역 공무원들과는 건축유산의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해서 자주 미팅을 가짐

#### □ 지정 신청절차

- 등재건축물로의 지정신청은 어떤 건축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English Heritage는 모든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함
  - 과거에는 특별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사진을 비롯한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지역에 따라서 업무를 지역별로 분담
  - 각 지역 지사에서는 Initial Assessment(초기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건축물이 건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Full Assessment(본 조사)를 실시
- Initial Assessment(초기조사): 신청건축물이 유산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보와 사진 확인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되며, 수행기간은 보통 하루 미만으로 조사자가 짧은 문단 하나 정도의 결론을 내서 향후 진행여부를 결정
- Full Assessment(본 조사): Initial Assessment(초기조사)를 통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Advisor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사진촬영, 건물상태확인, 주변 지역민들

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조사 실시한 뒤, 사무실에 돌아와서 방문내용을 정리하고 유산으로의 결정 여부와 등급을 평가하여 약 2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

- 런던에 있는 Designation 본부로 제출된 보고서는 런던 본부의 책임자와 4개 지역별 Team leader에게 전달되고 이들의 의견수렴 및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조율함
- 지정 신청에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보통 4개월 소요
  - 정부에 의해서 99.7% 정도의 English Heritage 의견이 채택되지만, 부처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혹은 신청건축물이 복잡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의견이 갈리기도 함
- 최근에는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건축유산의 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피해서 다른 부분의 수리-변경-개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건축물의 희귀성 및 가치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English Heritage는 국가적 관점에서 건축물의 등급을 판단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지역문화, 지역산업과 건축유산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도 함
- 일반적인 건축유산의 지정신청은 무료로 진행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English Heritage에서 신청자로부터 비용을 받음
-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서 English Heritage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Heritage Protect department의 계획으로 NHPP를 실시



## 2. City of London

- 일 시 : 2013. 08. 20(화) 10시
- 장 소 : 시티 오브 런던 계획부(Planning Department, City of London)
- 참석자 : Paul Robertshaw(Planning Officer, City of London)

### □ 조직구성

- City of London의 Planning Department는 약 30명으로 구성되며, 조직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2명의 Main Officer와 부서 행정을 총괄하는 Admin Officer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
- 부서는 크게 3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행정구역의 동쪽을 담당하는 팀과 서쪽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역사환경을 관리하는 팀으로 나뉨
  - 행정구역으로 팀을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의 구 안에서도 다른 도시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팀을 분리해 운영
- 역사환경을 관리하는 팀은 도시의 전체적인 역사환경을 관장하며 특히, City of London 의 모든 지역은 역사유물의 발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물개발의 기초를 위해서 땅을 파게 되는 경우 역사환경 관리팀이 참여

### □ City of London의 역사유산

- City of London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역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구역 중 한 곳임
  - City of London 내에는 총 611개의 등재건축물과 26개의 보존구역, 4개의 등록 공원 및 정원이 있음
- Planning Department의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주는 것은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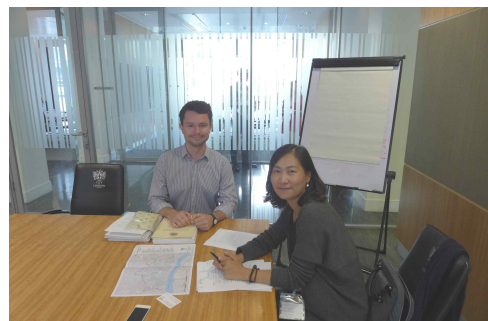
### □ City of London의 역사유산관련 행정체제

- 역사유산의 지정, 관리, 행정처리는 최고 권위의 법인 ‘Planning Act 1990’ 으로부터 정부정책인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NPPF)’ , 광역범위 계획(Regional policy)인 런던시의 ‘London Plan’ 그리고 City of London의 자체적인 지침서 ‘Draft Local Plan’ 을 통해서 이루어짐
- Listed Building Consent는 등재건축물의 변경-확장을 위한 행정신청으로 신청자의 신청과 관련된 비용지출이 없고 등재건축물의 굉장히 작은 수리, 보수 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신청건수가 많은 편임

- 등재 건축물의 등급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짐
  - Grade II의 Listed Building Consent는 구청에서 결정
  - Grade I과 Grade II\*의 Listed Building Consent는 English Heritage에서 결정
  - Grade I과 Grade II\*에 대한 English Heritage의 결정에 구청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함
- Grade II의 Listed Building Consent는 8주 내에(중요 건축물은 12주) 처리해야 하며, 21일의 공지기간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 □ City of London 의 Listed Building Consent 행정 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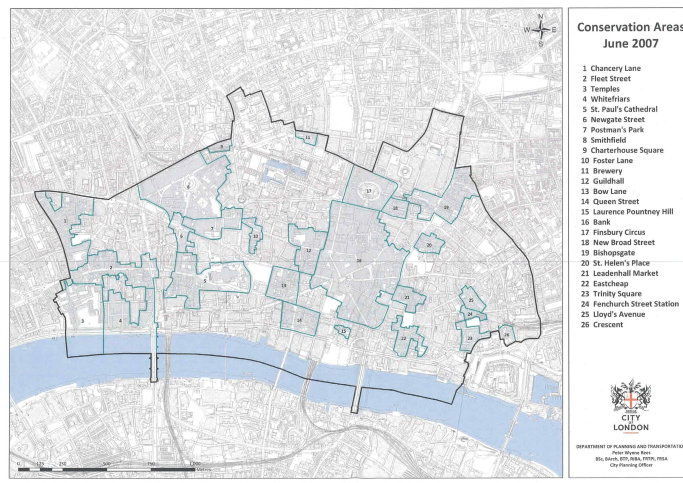
- Listed Building Consent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뉨
  - Pre-application: 구청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에게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상담
  - Planning Application: 민원인이 Listed Building Consent 신청을 하면 신청접수 부터 8주 안에 승인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이 중 5주는 담당공무원이 신청건물을 방문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조사 및 주변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나머지 3주는 관련 법규와 정책을 체크하고 보고서를 작성
  -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은 부서의 Director가 하지만 모든 건축신청은 각 동에서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Planning Committee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존지역 내의 건축변경신청은 시민들로 구성된 Advisor Committee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원회는 3주에 한번 모여서 관련 업무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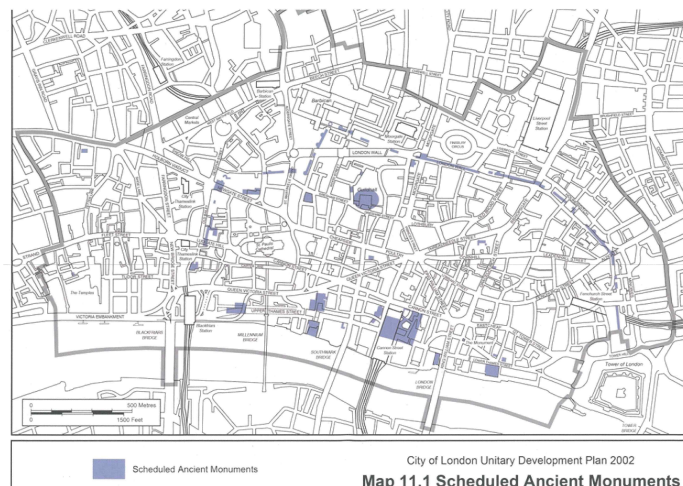




[그림 1] City of London Grade Listed Building MAP(2012)  
출처: City of London 내부자료



[그림 2] City of London Conservation Areas(2007)  
출처: City of London 내부자료



[그림 3] City of London Unitary Development Plan(2002)  
출처: City of London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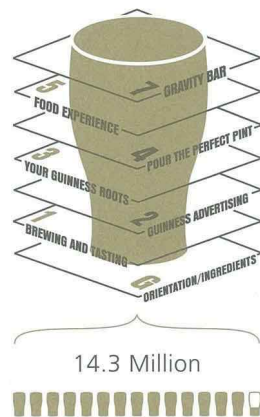


### ■ III. 주요 사례지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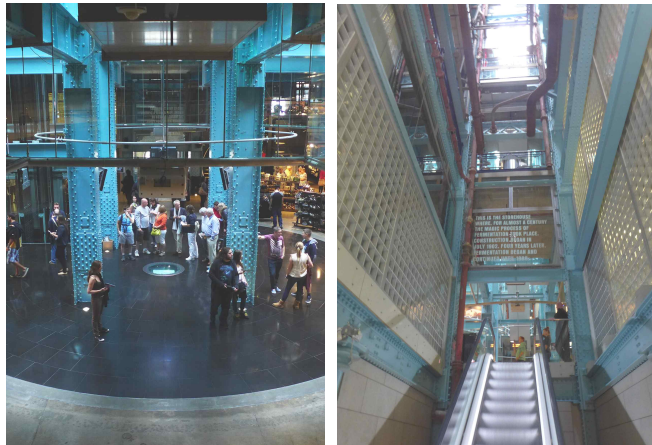
#### 1. 오래된 건축물 활용 사례

##### 1) Guinness Storehouse

- 기네스의 맥주공장은 아서 기네스(Arthur Guinness)가 1759년 사용이 중단되어 폐허로 있던 더블린의 한 양조장을 9000년 동안 혈값(연간 45파운드)에 임대 계약을 맺고 세인트제임스 게이트 양조장(St. James's Gate Brewery)을 설립한 것에서 출발하여 해마다 규모가 커져 현재는 약 26만㎡ 규모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조장
-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는 1902년 아일랜드에 건설된 최초의 철골 건물인 기네스 맥주공장의 한 창고를 1997년 방문자 센터와 전시관으로 개조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기네스 파인트 형태의 유리 아트리움을 둘러싼 7층으로 이루어짐
- 기네스 스토어하우스는 2000년 거대한 양조장 건물 단지 한복판에 문을 열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연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아일랜드 제1의 관광명소로, 오래된 창고건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음



Guinness Storehouse building design  
출처: Guinness Storehouse MAP



[그림 4] 기네스 스토어하우스 내부



[그림 5] 기네스 공장 외관



[그림 6] 기네스 공장 전경

## 2) Covent Garden

- 코벤트 가든은 1630년 베드포드 백작 4세의 이태리풍의 광장(Piazza)과 귀족을 위한 집에 대한 요구에 따라 건축가 '이니고 존스(Inigo Jones)'에 의해 조성된 잉글랜드 최초의 오픈 광장
- 1666년 대화재로 인해 런던 동부 지역 대부분의 시장이 소실되면서 1670년 이후 중심적인 농작물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도
- 1968년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착수하여 확정까지 약 10년이 소요되었으며, 처음에 계획되었던 이전 및 철거를 통한 정비계획은 시민참여의 점진개발을 통한 지구 복구형으로 변화
- 1975년 총면적 360,000m<sup>2</sup>의 코벤트 가든 지구의 복원사업 시작. 핵심 보존 건물인 마켓빌딩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건물의 개선과 무질서한 시설의 재편성 등 역사적 건물의 현대적 재사용이 이루어지면서 1980년에 역사적 환경을 재현한 유럽 최초의 전문 쇼핑센터로 재개장
- 코벤트 가든은 역사적 가로와 광장을 도시와 연계하여 접근함으로써,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사회·경제 활동을 통해 공간에 활력을 제공하고 장소성을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



[그림 7] 코벤트 가든 외관



[그림 8] 코벤트 가든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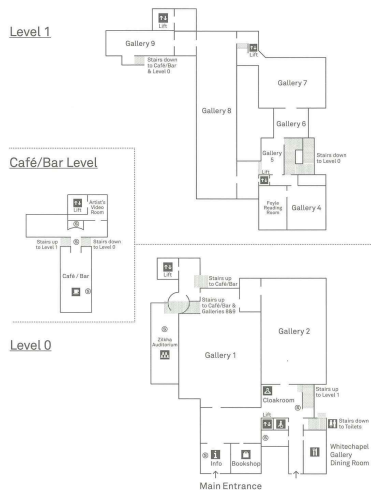
[그림 9] 코벤트 가든 내부



[그림 10] 코벤트 가든 지하광장

### 3) Whitechapel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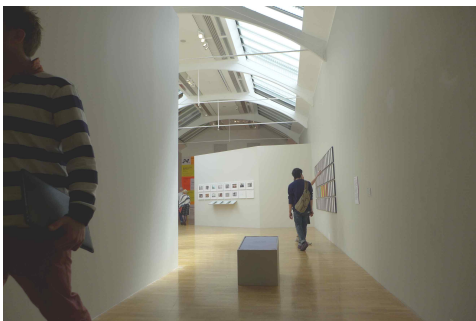
-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런던 동쪽의 타워 햄릿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17세기부터 이민자들, 위그노 교도들과 유대인, 정치 망명자들의 주거지로 당시 지역인구의 70% 이상이 타국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었었고, 1880년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이민자들의 유입 증가로 극빈층의 주요 거주지가 되면서 슬럼화가 심화되면서 이스트 엔드(The East End)라고 불림
-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1901년에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문화 시설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어 정부가 운영
- 화이트채플 갤러리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인 만큼, 다양한 작가들의 최신작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문화예술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자 런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
- 최근 2년간의 증축을 통해 2009년에 아카이브 전용 전시공간(Pat Matthews Archive Gallery)과 아카이브 자료 열람실(Foyle Reading Room)을 개관하여 좀 더 넓은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전시 및 강당, 식당,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11] 화이트채플 갤러리 평면  
출처: Whitechapel Gallery Map



[그림 12] 화이트채플 갤러리 외관



[그림 13] 화이트채플 갤러리 전시공간



[그림 14] 화이트채플 갤러리내 식당



#### 4) Barbican

- 바비칸은 런던의 중심시가지에 위치하여 중심상업지로서 발전해왔으나, 2차 세계대전 당시 14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파괴되면서 거주인구가 불과 50명이 안될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됨. 이에 도심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층 아파트와 교육·문화·예술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주거지로 계획
- 런던시는 1955년 폐허가 된 바비칸 지역에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1959년 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이후 런던 도시개발공사(Corporation of London)의 재정지원을 받아 1971년 ‘길드홀 학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재개발 계획 27년만인 1982년에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장함
- 바비칸 재개발 계획은 로마시대부터 내려온 성벽의 잔해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남아있는 역사적 유물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산책로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
- 주거(2,113세대), 호텔(200실), 콘서트홀(2천석)과 극장(1,250석), 도서관, 미술전시관, 영화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임



[그림 15] Barbican

## 2. 산업유산 활용 사례

### 1) Tate Mod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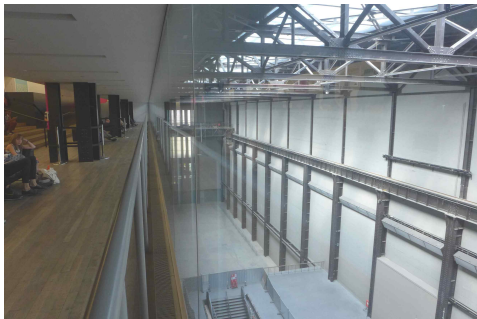
- 테이트 모던은 사우스뱅크에 위치한 템즈강변에 1952년 건립된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Bankside Power Station)를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0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것임
-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 중심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세워졌던 것으로, 공해문제 및 더 나은 전력공급 방식 도입 등의 문제로 인해 이전한 이후 1981년 사실상 버려진 건물로 20여년동안 방치되어 있어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
- 1994년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테이트 재단이 건축가 헤르조그&드무론이 제안한 아이디어대로 기존 건물을 허무는 대신 현대 미술관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함으로써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템즈강 남쪽 지역의 재활성화 시작
- 테이트 모던은 지역의 낡은 시설이나 건축물 자체가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재생과 활용을 통해 관광명소로 거듭나면서, 문화유산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사회 전반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 사례임
- 현재 테이트 모던은 교육과 연구 등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진화하기 위해 처음 테이트 모던을 설계한 헤르조그&드무론이 신관 증축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원래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맞춰 개관을 목표로 신관 증축을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음



[그림 16] 테이트 모던 전경



[그림 17] 테이트 모던 외관



[그림 18] 테이트 모던 내부(공사중)



[그림 19] 테이트 모던 변경 증축(안)

## 2) Battersea Power Station

- 1939년 템즈강 남쪽 둔치에 건설된 배터시 화력발전소는, 개인 소유의 몇몇 공장들에 의해 이루어진 런던의 전력 공급은 독점과 가격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없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런던의회가 건설
- 배터시 화력발전소는 벽돌로 이루어진 발전소 2개소가 똑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서 있는 성당 모양으로 당시 영국 경제력의 상징이자 영국 화력발전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양식의 발전소는 영국에 몇 군데 남지 않아 상징성을 지님
- 이에 80년대 초 유가파동으로 인하여 1983년 발전을 중단하자 국가유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운동을 통해 국가유적 인정받았으며, 이후 25년간 테마파크, 복합지역 등 무수한 개발 계획을 시도하였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건물은 점점 폐허로 변함
- 2004년 본격적으로 발전소 건물을 보호하는 개발안이 마련되었고 2013년에 개장할 예정이며, 개장 이전에 설치 미술품 전시, 영화촬영, 드라마의 배경 등으로 활용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새로운 시도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음. 올해 9월 발전소 원형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전시가 예정되어 있음



[그림 20] 배터시 화력발전소 전경



[그림 21] 배터시 화력발전소 주변 주거단지



### 3) The Wapping Project

- 1890년 런던 템즈강 동쪽 슬럼가에 세워진 와핑 수력발전소는 한 때 런던 전역에 전력을 공급해주던 발전소였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활용 가치가 줄어들자 1977년을 마지막으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20여년동안 방치되어 런던의 애물단지로 전락
- 1990년대에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유산이 가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자선단체를 통한 기금마련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원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이식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생 작업 시작
- 폐수력발전소를 개조하여 2000년에 문을 연 다목적 문화공간인 ‘더 와핑 프로젝트’는 120여년 전에 사용되었던 거대한 보일러, 펌프, 도르래 등 내부 시설을 거의 그대로 살리고 현대식 집기와 조명 등을 함께 연출함으로써 이전 발전소의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음
- 현재 레스토랑, 갤러리, 서점, 영화상영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분위기 덕분에 많은 예술가와 시민들이 몰리면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



[그림 22] 와핑 프로젝트 외관



[그림 23] 와핑 프로젝트 내부

### 3. 오래된 역사지구 관리·활용 사례

#### 1) Temple Bar

- 템플바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을 흐르는 리피강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더블린의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이며 현재의 거리 패턴은 옛 중세 도시의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18~19세기에 걸쳐 상업과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상인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더블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자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지구였으나, 이후 1960년대에 전통산업의 쇠퇴와 교외화로 인해 침체됨
- 1980년 무렵부터 개보수가 많이 필요한 역사적 건물들의 개보수를 입주자가 하도록 하는 대신 건물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많은 문화관련 기관과 소매상인, 예술가들이 유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와 유흥을 겸한 지역으로 탈바꿈
- 1987년에 템플바 지역의 역사적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용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재생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템플바 지역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문화지구로 계획
-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자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산업과 상업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경제를 활성화시킴. 현재 펍과 식당, 극장, 상점, 갤러리 등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현대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그림 24] Temple Bar



## 1) Hampstead Garden Suburbs

- 햄스테드는 런던의 중심부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광대한 녹지대를 자랑하는 햄스테드 히스 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완만한 지형으로 런던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고급주택
- 하워드(Ebenezer Howard)는 전원도시 실현을 위해 언윈(Raymond Unwin)과 파커(Barry Parker)와 함께 1904년 레치워스(Letchworth)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의 성공으로 1906년 언윈의 도시계획 이론을 바탕으로 한 햄스테드 전원교외 사업으로 이어짐



[그림 25] 언윈의 계획도

출처: [http://www.hgstrust.org/history/historical\\_development.html](http://www.hgstrust.org/history/historical_development.html)



[그림 26] Hampstead Garden City

## 2) Camden Market & Columbia Flower Market

- 캠든마켓은 런던 리전트파크 북쪽의 캠든타운에 자리잡고 있으며, 파키스탄 사람들과 흑인 등이 밀집한 범죄의 근거지이자 과거 인종차별과 계층간의 장벽, 런던 서부와 동부의 격차 등으로 인해 개발이 뒤처지고 환경이 낙후된 슬럼가로 통하는 지역이었음
- 핑크족의 진원지로서 이국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하며, 신인 예술가들의 유입으로 런던 최신 유행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 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더욱 관심을 받으며 매주 5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런던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 캠든마켓은 캠든 록 마켓, 스테이블스 마켓, 커널마켓, 벅스트리트 마켓, 일렉트릭 볼룸 · 인버니스 스트리트 마켓 등 6개의 시장을 합친 개념으로 상점 · 클럽 · 카페 등과 200여개의 노점이 집합된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트릿 시장



[그림 27] Camden Market

- 콜럼비아 로드 플라워 마켓(Columbia Road Flower Market)은 1869년 자선가 Angela Burdett-Coutts에 의해 천막이 덮인 400여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식료품 시장으로 설립되었으며, 1886년 문을 닫은 후 창고와 작은 작업장으로 사용되었고 1940년 폭탄에 의해 타격을 입었으나, 1960년대 원예프로그램의 인기 증가로 부활
- 현재 주일에 Flower Market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2층 규모의 오랜 건물은 꽃과 관련된 상품을 파는 상점 및 젊은 예술작가들의 작업실 등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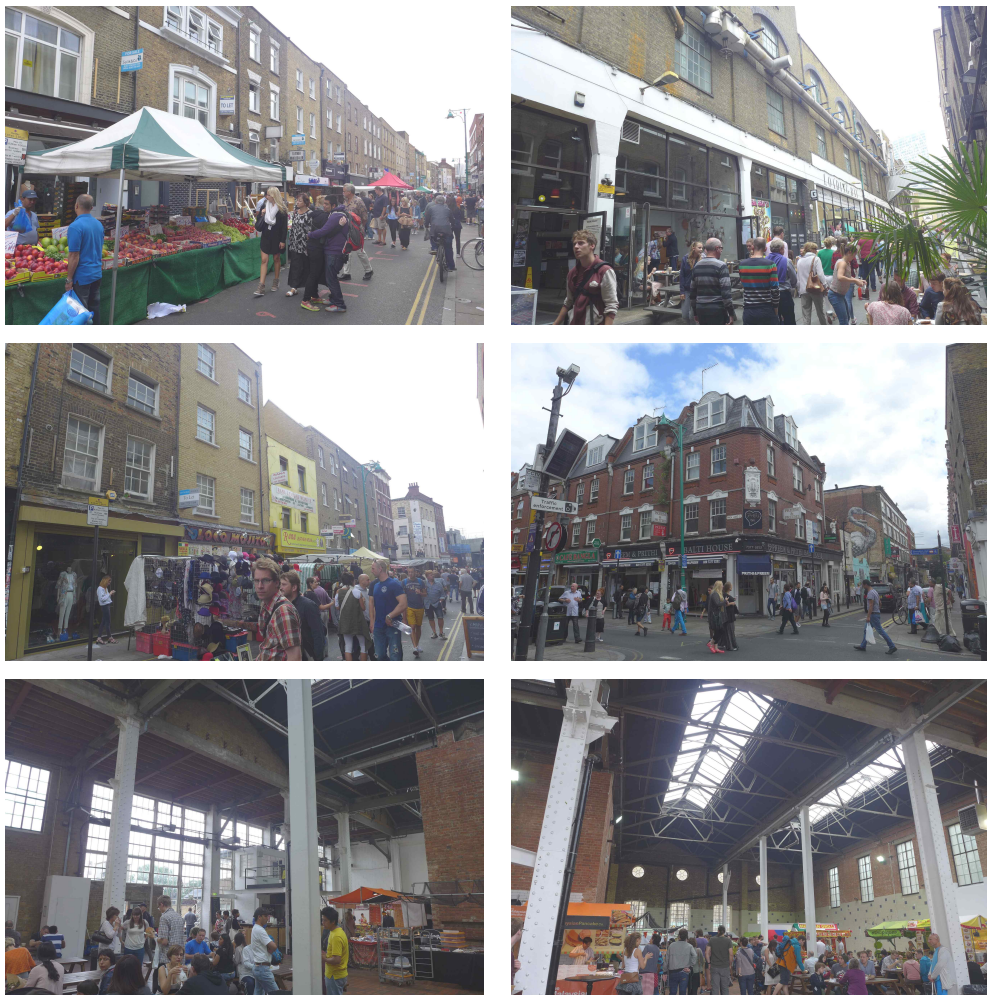


[그림 28] Columbia Flower Market



### 3) Brick Lane

- 브릭레인은 영국 런던에 있는 예술가들의 거리로 17세기부터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한 때 방글라타운(Banglatown)으로 불렸으며, 그밖에 인도, 파키스탄, 유대인 등 외국 이주민이 터를 잡으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지역
- 런던 중심지에서 상대적으로 땅 값이 저렴하여 한 때 이 지역 공업 중심지였던 18세기 맥주 양조장 ‘트루먼 브루어리(Truman Brewery)’를 중심으로 유명 클럽이 들어서면서 많은 젊은이와 예술가들이 브릭레인으로 유입되기 시작
- 지금은 런던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화가·음악가·건축가·조각가·패션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곳곳에 위치하여 예술·창작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임
- 또한 오래된 건물을 식당, 상점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English Heritage에 의해 Listed된 주거건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독특한 가로경관을 형성



[그림 29] Brick Lane



[그림 30] 브릭레인 주변 Listed Building



#### 4. Listed Park & Listed Building 사례

##### □ Listed Park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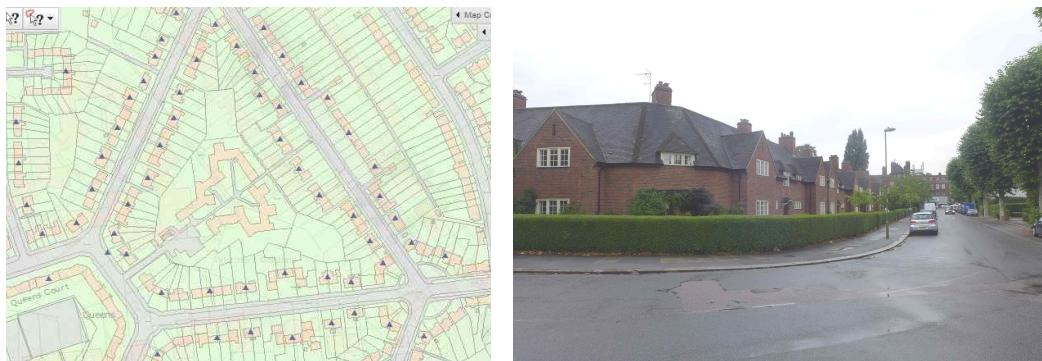
- Listed Park는 English Heritage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30년 이상 된 곳이면 서 지역적·국가적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곳으로 이해·관리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이 이에 해당

제임스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 Heritage Sites<sup>1)</sup>로 지정</li> <li>• 마케팅(Marketing)부문에서 Special Award for Innovation(2009/2010) 수상</li> <li>•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왕립공원으로, 원래 헨리 8세가 사슴사냥을 하던 곳이었으며, 찰스 2세에 의해 정원의 모습을 갖추게 됨</li> </ul> <div>   </div>
빅토리아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섯 개의 Green Flag를 수상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식지와 성목의 다양성 및 시설과 야외 음악당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li> <li>• 'York House Water Gate'를 포함한 160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다수의 훌륭한 조각상 있음</li> </ul> <div>   </div>
번힐 필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nhill Fields Burial Ground는 'Grade I' 에 리스트된 공공 오픈스페이스</li> <li>• 1600년대부터 묘지로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2차 세계대전의 피해로 약 2% 정도만이 남아있으며, 1960년대 조경이 다시 이루어져 정원으로 제공</li> </ul> <div>   </div>

<p>햄스테드 히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 Heritage Sites로 지정되었으며, Community Engagement(지역사회참여)부문에서 Special Award for Innovation (2009/2010) 수상</li> <li>• 면적이 320헥타르에 이르는 큰 규모의 역사가 오래된 공원으로 언덕에서 런던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 공원 북쪽에 미술품 컬렉션으로도 유명한 17세기 건물인 켄우드하우스 있음</li> </ul> <div>   </div>
<p>배터리시 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 Flag Award<sup>2)</sup> Guidance Manual’ 에서 Green Flag Award 평가기준 중 보존 및 문화 유산(Conservation and heritage) 부문에서 소개된 사례</li> </ul> <div>   </div>

#### □ Listed Building이란?

- Listed Building은 English Heritage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것이면서 건축적 · 역사적 · 미학적 · 국가적 · 희귀성 · 선별성 · 보수상태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



[그림 31] Hampstead Garden City 주변 Listed Building

- 1) English Heritage에 의해 30년 이상 된 것이면서 지역적·국가적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공원에 대한 이해·관리 측면에서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부여
- 2) Green Flag Award는 영국의 공원과 녹지의 국가 표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녹지를 인식하고 보상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





[그림 32] Hampstead Garden City 주변 Listed Building



[그림 33] 코벤트 가든 주변 Listed Building



## ■ IV. 구독자료 목록

□ English Heritage 발간물

